

# 김동수 교수의 요한이 말하는 예수

## 4강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아들 예수

### I. 들어가는 말

1.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는 제자들을 선택하고 표적을 행하는데, 여기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비교적 호의적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듯이, 예수도 사마리아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러 찾아 나섭니다.

2. 요한복음 5-12장에는 예수와 유대인들의 대충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슈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신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 1) 7장 1, 25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자로 여겨 죽이려 합니다.
- 2) 8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자, 사람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합니다(59절).
- 3) 10장 30절에서 예수가 자신과 아버지는 동등하다고 하자, 유대인들이 역시 신성모독죄로 몰아 예수를 돌로 치려합니다(31-33절).

3. 요한복음 5장은 이러한 대충돌의 시작입니다. 대충돌의 이슈는 이른바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로 공부할 내용은?

### II. 요한복음 5장

\*먼저, 대충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요한복음 5장 내러티브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1. 38년 병자의 치유(1-9a절)

- 1) 예수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합니다. 이 치유는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기적과 비슷합니다. \*낫고자 하는지 질문하고, 예수가 말씀으로 치유한 것 등.
- 2) 이 치유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점입니다.
- 3) 또 예수는 이 사람의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6절).

#### 2. 안식일 계명 위배 여부 논쟁(9b-16절)

- 1) 유대인 당국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안식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십계명 위배라고 말합니다(출 20:10).
- 2)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합니다(16절).

#### 3. 유일신론 논쟁(17-47절)

- 1) 그런데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논쟁으로 발전합니다.
- 2)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정당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는 것입니다(17절).
- 3)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이 말이 곧 하나님과 예수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18절).

4) 예수와 하나님이 본질상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리라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는 오히려 그 말이 맞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고대 사회의 도제 관계처럼 독특하게 본질상 동일한 관계라고 합니다(19-29절).

3)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의 근거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사(표적)와 아버지의 증언과 구약 성경(모세)을 듭니다(30-47절). 예수님은 자신이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성경이 제시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유일신론을 뒤집어서 삼위일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론을 배격하지 않으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4)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이 유일신론을 배격하지 않으면서도 삼위일체론을 전개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III. 요한복음과 삼위일체

#### 1.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Wayne Grudem)

-신약성경의 삼위일체 구절들: 마 28:19-20; 고전 12:4-6; 고후 13:13; 엡 4:4-6.
-삼위의 구별(요 1:33): 성령이 예수에게 내려오실 때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가 동시에 등장한다.
-구속사에서 각자의 구별된 역할(14:26): 아버지의 성령 파송과 성령이 아들이 말한 것을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다(10:30).

#### 2. 삼위일체(Trinity)는 유일신론(Monotheism)을 배격하는 것인가?

1) 당시 유대교는 엄격한 유일신론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쉘마(신 6:4)에 기초하여 있습니다.

2) 요한복음에는 예수님도 예배의 대상이고(5:23; 9:38), 주님이요(20:28), 창조자이며(1:3), 심판자이며(15:22),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5:21). 곧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1:1, 18; 20:28).

3) 그렇다면 이것은 쉘마에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유일신론을 배격 혹은 삼위일체론으로 대체한 것 아닌가?

-유대인들은 예수가 유일신론을 배격한 신성모독 죄를 지었다고 보았습니다(5:18; 8:58-59; 10:30-31).

-하지만 요한복음 5장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구약의 유일신론을 배격하고 이와는 다른 신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유일신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자신이 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5:39)과 모세(5:45-46)가 예수님의 주장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4) 이것을 리처드 보컴(Richard Bauckham)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적 유일신론”이라고 지칭함

니다. 이것은 구약과 유대교의 유일신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삼위일체 신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한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포함된 것인데, 요한은 이것을 “일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요10:30; 17:11, 20-23).

### 3. 예수: 유일한 아들로서의 하나님

1)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해서만 유일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아들 됨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1:14, 18; 5:18).

-아버지와 아들은 상호 내주합니다(10:38; 14:10, 11, 20; 17:20, 21).

2) 아들은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버지와 아들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합니다(5:18; 10:30).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께 의존합니다(4:34; 6: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6:38)

3) 사역에 있어서 예속은 삼위일체 개념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능적 예속” 혹은 “출저된 협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 4. 성령: 성부와 성자의 대사(大使) 하나님

1) 성령은 단순한 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는 구별된 인격체입니다.

2)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에 포함됩니다.

-“그가 내[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예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성령]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16:4-15).

-만약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구별된 인격체가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라면(제유법) 이 구절은 불가사의한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것을 말하며(13절), “내 것” 곧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알린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되며, 성령은 예수와 같은 신적 존재입니다(14:16).

퀘스텐베르거라는 학자는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신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i) 성령은 그 활동에 있어 주권이 있다(3:8). (ii)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6:63). (iii)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신다(14:17). (iv) 성령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16:13). (v) 성령은 새 창조를 불러오시는 분이다(20:22).

3) 예수와 성령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i)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다(1:32-33). (ii) 성령은 진리(예수)의 영이다(15:26; 16:13). (iii) 성령은 예수의 대리자다(14:16).

4) 하나님과 성령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i)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교회에 알린다(16:14-15). (ii)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공동체로 파송 받는다(14:16, 26; 15:26).

## 5.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성령의 파송자

- 1)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구약과 유대교에서 말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 2)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아버지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 3)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교회 공동체에 파송합니다.

## 6. 삼위일체와 선교

-요한복음에서 삼위일체는 선교라는 주제로 가장 잘 설명됩니다.

- 1)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들을 파송합니다(3:16a).
- 2) 아들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 계시와 대속을 위한 죽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19:30).
- 3) 성령의 핵심적 사명은 위와 같은 예수의 사명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15:26-27).

## IV. 적용과 실천

### 1. 삼위일체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 1) 하나님의 중심 속성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인격이 분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미로슬라브 볼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181)

내적 분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뿐이고, 아 경우에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사랑으로 묘사하는 편이 더 적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비할 데가 없는 유일무이한 통일체이긴 하지만 내적으로 분화된 통일체이다. 말하자면, 유일한 하나님 안에 “타자”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타자”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단지 자신을 긍정하고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라, 타자에게 주고 타자로부터 받는 사랑이다.

- 2) 점유(‘페리코레시스’): 상호 점유

### 2. 삼위일체는 신자의 윤리로 연결됩니다.

- 1) 삼위일체적 일치(10:30; 17:21, 22)는 교회의 일치를 요청합니다(17:11, 22, 23; 10:16).
  -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신자 간의 코이노니아의 기초라고 말합니다(1:1-4).
  - 곧 삼위일체는 단순한 신에 관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신자의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2) 미로슬라브 볼프의 『삼위일체와 교회(After Our Likeness)』(새물결플러스, 2012)를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본서가 질문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볼프는 삼위일체 인격체 간의 존재 양식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 원서의 제목도 “우리[삼위일체 우리]처럼: 삼위일체의 이미지로서의 교회”이다.

사실, 삼위일체 자체도 이해하기 쉬운 주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 모습대로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일 수 있다. 볼프가 이해하는 삼위일체의 모습은 이른바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지배하는 군주적 삼위일체론이 아니다. 그것은 이른바 삼위간의 민주적 삼위일체론이다. 즉 삼위일체 각 위격은 인격 간에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내재적이다. 볼프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의 신적 인격은 단지 그 자신일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다른 신적 인격들을 동시에 탐지한다. 그리고 오로지 그 안에 이러한 다른 인격들이 내주하는 것 가운데 그 인격은 진정한 인격이 된다.”(349) 즉 삼위일체는 각 인격이 “융합이나 혼합 없이 상대방 안에 내재하는 것이다.”(348)

볼프는 이러한 삼위일체가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한다. 교회에서 각 개인은 하나님의 주신 고유한 특질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 내에 있는 개인은 개인의 연합이 아니라 상호 인격을 내재적으로 공유한다. 그래서 몸에 있어서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그 아픔을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교제 안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293) 볼프가 여기서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과 교회의 존재 양식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중요하게 본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이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데 있다(마 18:20)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교제를 깨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 한 지체가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교제를 깨는 것이다. 둘째, 지체가 인격체 간의 상호 내주 없이 독립적 개인과 연합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교회 안에 삼위일체적 모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혹은 한 직분자 중심이 아니라 다중심으로 가야하는 것이다. 또 모든 신자는 서로 형제 혹은 친구의 관계로 서로 교제하고 개인의 특질이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상호 내주에 의해 교회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론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래 이 책은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같은 감독제 교회의 교회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외려 우리 한국 교회 이해에 대한 비판으로 읽어도 무리가 없다. 우리의 교회는 조직도 본질도 너무도 유교 사상과 세속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사람이 지배하는 교황제를 비판하는 많은 개신교가 오히려 담임 목사 한 사람 혹은 교회에서 힘을 쓰는 사람(들)의 지배하에 움직이고 있다. 또 서구의 세속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서로 연합과 상호 내주가 없다. 단지, 개인의 집합이 교회에서 각자가 같은 시간에 예배할 뿐이다. 교회로서 각 개인은 하나의 몸을 형성해야 한다.

## V. 나가는 말

1.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 아버지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통해 요한복음에 삼위일체 사상이 있고, 또 그것의 윤리적 함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후의 요한복음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2. 다음 주에는 예수가 유대인들 앞에서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는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왜 걸려 넘어지는가 하는 주제를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